

# 불교, '탄생지' 인도서 왜 사라지는가

## 스리랑카 언론 'LankWeb', 불교 쇠퇴 원인 '주목'

인구 12억 중 1% 못 미쳐  
승가 부패·학살 등 의견 대두  
브라만교 의해 카스트제 흡수돼  
불교 성지 등 빼앗기며 퇴락

스리랑카 언론 'LankWeb'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2011년 기준) 인도 인구 9억1200만 명 중 불교도는 약 84만 명인 0.7%에 그친다. 이는 힌두교 9억 6630만 명, 이슬람 1억 7220만 명, 기독교 약 278만 명, 시크교도 208만 명 등에 비해 1%도 못 미치는 적은 수치다. 이마저도 티베트 국경지역인 히말라야 산맥 인근 고산지대에만 분포해 있다.

국가민주연합(NDA)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2011년 기준) 인도 인구 9억1200만 명 중 불교도는 약 84만 명인 0.7%에 그친다. 이는 힌두교 9억 6630만 명, 이슬람 1억 7220만 명, 기독교 약 278만 명, 시크교도 208만 명 등에 비해 1%도 못 미치는 적은 수치다. 이마저도 티베트 국경지역인 히말라야 산맥 인근 고산지대에만 분포해 있다.

'LankWeb'은 "브라만들은 위대한 브라만교에게 모니를 지켜내기 위해 불교 박해 캠페인으로 대항했다"면서 "불교도를 카스트 제도의 하층 계급(수드라)에 배치하고, 부처님을 힌두교 신 중 하나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불교가 카스트 제도 아래 최하층민으로 흡수됨으로써 불교의 종말이 초래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하보디(Mahabodhi) 사원 복합단지에는 붓다의 생애와 관련된 4개 성지 중 하나로, 특히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13세기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점령한 뒤 불교 탄압 속 몇 세기 동안 점차 폐허로 변했으나 19세기 이후 사원복원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출처=7wonders

을 어기고 소고기를 섭취하던 브라만교인들이 채식 주의자로 돌아서고, 인기 있는 불교 의식을 라마(Rama)와 크리슈나(Krishna) 등 힌두교 신들을 위한 제 의식에 적용했다.

했다. 이밖에 'LankWeb'은 불교 탄압으로 인한 불교 성지들의 파괴와 도용 실태에 대해 언급했다. 부다가 야(Bodhi Gaya)에 위치한 마하보디 사원은 사이바이트(Shaivite, 시바신을 믿는 힌두교도) 사원으로 변형시켰고, 불교 4대 성지 중 한 곳인 쿠시나गर 열반당(The cremation stupa of the Buddha Kushinagar) 등이 비슷한 논란 속에 있다.

## “사회 변화 중심에 ‘종교’ 있다”

술락 시바락사, 9월 30일 UN본부서 강연



태국 불교지도자 술락 시바락사가 9월 30일 UN본부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초청으로 강연에 나섰다.

세계적 불교사상가이자 사회비평가인 술락 시바락사가 '자본주의 꽃' 뉴욕서 자본주의를 비판해 이목을 끌고 있다. 'Lion's Roar'는 "태국의 불교지도자 술락 시바락사가 지난 달 30일 UN 산하 국제적십자위원회 초청으로 UN본부를 방문, 현대 사회 병폐로 꼽히는 소비주의와 개인주의의 근본 원인으로 자본주의를 지목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세만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며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이런 점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사회 변화의 중심에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구사회도 기록과 정신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한 술락 시바락사는 "부탄의 행복지수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데, 이는 산업발전만이 좋은 것은 아니며 그 대안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트 데 네주, 사찰 증·개축 허가할까

가 몬트리올서 '사찰vs시당국' 법정 공방  
관음사 '요청'에 '불허'하며 9년간 씨름

불자들이 찾아올 정도다. 그러나 사원 경내 공간이 부족한 탓에 신도들의 신행 공간 역시 부족한 상태다. 상탈 판(Chantal Phan)씨는 최근 관음사서 할머니 장례를 지냈다. 판 씨 할머니는 코트 데 네주 베트남계 불교 공동체에서 '관음사의 역사'로 통했다. 슬하 가족 모두 관음사 제자신도다. 그런데 할머니 장례식에 가족 3분의 2가 경내에 들어올 수 없었다. 경내가 너무 좁은 탓이었다. 판 씨는 "장례식 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이 몹시 서운해 했다"며 "우리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세상사 모든 일을 관음사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서 사찰 증·개축 문제로 시 당국과 사찰 간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CJAD News'는 10월 4일 "사찰 증·개축을 위해 9년째 시 당국을 설득해온 베트남계 사찰 관음사가 결국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코트 데 네주(Cote-des-Neiges)의 관음사는 9년 전 사원 옆 부지를 구입하고, 시 당국에 사원 증·개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관음사 내 주거 공간이 있어, 신앙 공간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게 시 당국의 판단이다.

### 통합을 넘어 융합으로

# 2015 아시아문화축제

## 다꿈

Great Wish

### 어울림한마당

---

다꿈(Great Wish)어울림한마당은 이주민과 일반시민이 함께합니다. 동아시아 9개 국가의 다양한 전통과 종교문화를 체험하는 국내 최초의 축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주요프로그램**  
아시아 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불교문화체험, 이주민 배구대회, 장기자랑, 문화공연, 양방진료, 한옥마을 방문

**먹을거리**  
다문화요리, 연잎밥, 스님짜장, 사찰음식 등

**자원사향**  
45인승 차량지원, 문화체험부스 운영비 지원

**사상**  
배구대회(총상금 120만원), 장기자랑(총상금 160만원)

**경품(행운권추첨)**  
노트북, 태블릿, 32"TV, 가스렌지, 전기밥솥, 자전거, 선풍기, 생활용품, 상비약품(100개) 등 다수

**주최:** 조계종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금산사, 선운사  
**주관:** (사)착한벚꽃, (사)지구촌공생회전북지부, 전북불교네트워크

**아시아문화축제, 다꿈어울림한마당 조직위원회**  
문의전화: 063-236-0602

---

# 10.18 Sun

## 10:00-17:00

### 전주화산체육관



대한불교조계종



전라북도



108 Lotus Korea



KBS 전주



스님짜장



108 BTN



지구촌공생회



nfcc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국제포교사회



(사)아름다운동행



참좋은우리결

## 무슬림단체 미얀마 대통령에 소송 제기

뉴욕서 '로힝야족 집단 학살' 혐의

무슬림 단체 연합이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을 상대로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혐의는 소수 민족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했다는 것이다.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미얀마의 소수 민족으로 올해 박해를 피해 대규모로 미얀마를 떠나 해상 난민 문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무슬림 단체 연합의 소송에는 "로힝야족은 극단주의 불교 수도승들과 테인 세인 정부가 불붙인, 결국 집단 학살로 이어진 혐오 범죄와 차별의 주된 대상이 돼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962년부터 불교를 지향하는 정부는 배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통치를 해 왔다"면서 "로힝야족은 그들의 신념과 뿌리 때문에 잔인하게 박해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성민 기자 mt079@hyunbul.com